

2002 겨울호

서른다섯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나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희망도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childcancer.or.kr>

새 출발, 새 각오



신 희 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서울대 의대 교수

해마다 1,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더 나은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70%이상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완치율과 소아암의 특성은 재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아픈 아이이기 이전에 육체적 성장과 함께 지적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10년 전 만해도 소아암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새 생명을 찾아 주는 일만큼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또래 집단과 어울릴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돌보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단의 사명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암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재단은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따라 이 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정서적 발달과 지적 성장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알리안츠제일생명여의도점과 우체국 훈사랑의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시작한 '셈틀누리'는 컴퓨터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훌륭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아이들에게 병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도 마시고,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아암가족 남도기행'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한 소아암의 조기 발견과 100% 완치를 위한 소아암 연구 지원사업도 전개할 것입니다. 신경모세포종의 조기발견 사업을 좀더 활발히 전개하고,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협력하여 연구사업과 소책자 발간사업을 보다 폭넓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후원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의 꾸준한 자원봉사는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 '병원학교'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시작되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LG화재 여직원회의 작은 정성은 매달 70여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새생명통장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천사백운동을 통해 2002년 한해에만 5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3억원이 넘는 이식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월드컵을 맞이하여 시작한 만세 운동은 6백여명의 수호투사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만세!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마음껏 만세를 외치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밖에는 쓸쓸하게 나뭇잎이 황량한 거리를 나뒹굴고 있단다.
이식을 위하여 입원한지 57일.
너무도 오랜 시간을 답답한 무균실에서 갇혀있게 하는 아버가 원망스
럽고 힘이 들겠지?

이제 이식한지 39일.
여건아! 아버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에 얼마나 가슴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건이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아
빠는 여건이를 사랑한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 흘러 앞으로... 여건

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이식병동에서도 “아빠 파이팅!”을 외치며 오히
러 아버를 위로해 주었던 너. 너를 보고 싶어 이틀동안이나 간호사 선
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21일 만에 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의 눈
을 의심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어 주던 여건이를 본 순
간, 아버는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손 한 번 흔들어주고 돌아서
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오히려 아버가 여건이보다 약해진 것 같
아 너무 창피했다. 약해져버린 아버를 용서해주렴.

사랑하는 여건아! 이식병동에서 무균실로 내려왔을 때 같이 있는 모
든 엄마들이 여건이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었지. 여건이의 쾌유를 위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는 이식을 받은 여건이는 다른 아이들
의 표본이 되었다. 그만큼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지만 너무도 건강
하게 곳곳이 버터주며 생활하고 있는 여건이가 아버는 얼마나 자랑스
러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여건아!
여건이를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아
빠에게, 엄마에게, 여건이에게 많은 분들이 여건이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꼭 해낼 수 있단다. 여건이가 아버지께 해준 말대로 우린
꼭 이겨낼 수 있단다.
오늘도 아버가 병원에 갔을 때 여건이 이야기가 화제였다. 잠
자는 엄마의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엄마 많이 힘들지요. 이
제 조금만 더 고생해요.”라는 여건이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여건아!! 우리 두손을 꼭 잡자. 이제 다 지나가고 있단
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제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지만, 우리 따스한 마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

여건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여건이(5세)는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건이는 2002년 10월 제대혈이식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 사진 속 아래줄 왼쪽이 바로 여건이랍니다. ♥

가발 지원

소아암 어린이들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게 됩니다.
 갑작스런 자신의 외모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마음의 상처도 받는 우리 아이들.
 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심리적 위축감을 경감시키고자 가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발지원사업과 함께 가발제작과정을 소개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여자 어린이

■ 지원수량

연간 48개

■ 가발지원과정

① 전화접수

재단 사무국 02)766-7671

서울 우체국 혼사랑의집 02)704-8310

광주 우체국 혼사랑의집 062)234-5528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집 053)253-7671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051)244-7677

② Cap 사이즈 측정

③ 가발제작

④ 방문 혹은 우편발송

※ 접수 후, 가발을 지원 받는 시기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후원처 : 동남교역상사

전량가발수출업체인 “동남교역상사(사장 김태수)”에서는
 1996년 6월부터 소아암 어린이들의 가발을 제작해주고 계십니다.



▶가발을 썼는지 아시겠어요?
 너무 이쁜 숙녀들의 모습입니다!

가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모반

머리를 정리하고 색을 맞추는 작업



CAP반

머리 심을 곳(모자 또는 인공피부)을 만드는 작업



파마반

적당한 스타일을 내기 위해 파마를 시키는 작업



수제반

제작된 cap에 머리를 일일이 손으로 심는 작업



코팅반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하고 꺼칠한 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

미용반

주문된 모양에 맞게 컷트하거나 롤링을 하는 작업으로
가발제작의 최종단계



완성된 가발 모습 ♥♥

가발제작은 과정 중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수정할 수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제주도 소녀의 서울 입성기'

서울로 입성하기까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다. 설레는 맘으로 첫 등교를 하던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배가 몹시도 아팠다. 체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는 더욱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만 했다.

고개를 가우뚱거리시던 의사 선생님께서서는 “입원을 해서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아보아야 할 수 있겠네요”라고 하셨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골수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였다.

서울이란 곳은 태어나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언젠가 꼭 한번 가보리라 맘먹었던 곳이었었는데, 치료 때문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서글퍼왔다.

본격적인 서울생활

아빠 손에 이끌려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 병원의 응급실이였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링겔을 맞고 있었다. ‘큰 병원이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병에 걸린 애들도 보는구나!’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신기해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머지 않은 날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진단을 받고 치료가 시작되고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몸은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항암치료라는 것이 주사를 맞으면 더 많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밥도 먹기가 싫고, 그나마 속에 있는 것들도 모조리 다 토해냈다.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병실 밖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내가 이따분한 병실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 만약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언제쯤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했다.

힘들었던 치료들을 기억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일명 엉덩이 주사와 어깨주사는 주사를 맞기 전부터 나를 완전히 초전박살 내는 공포의 주사였다. 찌질 수건은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필수품이었으니까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척추검사, 혈액주사, 금토일은 박트림! 수심 가지가 될 것 같은 약들과 주사는 2년 3개월이란 긴 시간을 끈질기게 쫓아다녔다.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10년만 젊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라며 과거를 동경한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금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면 차라리 죽을래요” 하지만 그 힘든 기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힘은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들과 고마웠던 사람들, 귀엽고 밝게 치료받던 아이들과 나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땀흘리시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내 한쪽 가슴을 얼마나 따스하게 감싸 안아 주는지 모른다.



김혜연

1982년 3월 29일 생

1997년 3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1999년 6월 치료종결

현재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 2학년 재학 중

다시 그리운 고향! 제주도로!

16살 꿈 많던 소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힘은 내 남은 삶에 대한 작은 소망이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매주마다 만났던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대학진학을 하면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나는 치료를 받으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아름답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말이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해졌다. 그것은 내 미래가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아프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날들이지만, 그래도 내 미래는 그렇지 않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또한 나는 벌써 나왔고, 단지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료했다.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대학을 졸업해서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지난 삶을 밑거름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벅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지금의 나의 현실의 고통을 기억하지 마세요. 내일은 밝게 웃고있는 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라고 말이다. 분명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당신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심터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하나! “머피” 헌사랑의집에 오다!!

오로라월드(주)는 “신머피의 법칙 행운 대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2일 “헌사랑의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행운의 상징 “머피”를 이용하여 헌사랑의집을 정감 있고 따뜻한 공간으로 꾸미고,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예쁜 머피인형을 선물했습니다.

두울! ‘셈틀누리’ OPEN

10월 23일, 헌사랑의집에서는 ‘셈틀누리’ 방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셈틀누리’란 순우리말로 ‘컴퓨터세상’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셈틀누리’ 방에는 벤처기업협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노트북 3대와 스캐너, 프린터, 각종 CD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어머니, 게임을 통해 한글을 배우는 꼬마친구, 게임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소녀... ‘셈틀누리’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손은주〉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10월 27일 전남체신청 후원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치료받는 가족들이 모여 백양사, 죽물박물관, 소재원으로 남도기행을 떠났습니다. 마침 백양사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어 참가한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죽물박물관을 관람하는 것보다 뒤뜰에 마련된 대나무로 만든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더 즐거운 듯했으며, 조선시대의 정원인 소재원에 있는 대나무 숲을 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행어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두들 추위도 잊은 채 무척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년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한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유적지에 대해 재미있고 유익한 설명으로 더욱더 뜻깊은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신 전남대 사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배재영 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신 기동 82중대와 호남대, 광주대, 목포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어느덧 개소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해를 정리할 때면 참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올 한해도 많은 슬픈일, 기쁜일을 겪으며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헌사랑의 집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각 병원 환아들을 위한 생일잔치가 있었고 이는 별난 아저씨가 도와 주셨습니다. 또한 캐리커처를 해서 (사진의 중간에 보이시죠? 이것이 캐리커처 한 그림이랍니다.) 예쁘게 액자에 넣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올해 유난히도 국제적인 행사가 많았던 부산인 만큼 우리 아이들도 국제행사 관람을 했었죠. 부산체신청의 후원을 받아 태권도를 관람한 아이들의 환한 얼굴 속에서 하루빨리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항상 헌사랑의집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부산체신청 직

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헌혈을 해주신 분들과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아이들의 치료비마련을 위해 노래로써 사랑을 전하신 허놀타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소개할 행사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모두다 소개할 수가 없군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알리안츠제일생명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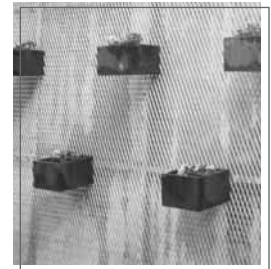


알리안츠제일생명익집 앞 담벼락은 화단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조경과는 달리 담벼락 밑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항상 있었답니다. 아무리 치워도 한계가 있었던 쉼터 앞을 지난 10월 17일, 삼성 SDS 푸른마을 봉사클럽에서 완벽하게 변신시켜 주셨답니다. 사람들이 뽑아가 버어린 화분을 예쁜 국화꽃으로 채워 주셨고, 주변에 널부러진 쓰레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해주셨지요. 빗자루 이용은 기본이거니와 삽, 톱.....

이제 쉼터 앞은 깨끗하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게 변신!!!

삼성 SDS 푸른마을봉사클럽 회원분들! 정말 수고하셨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아픈 아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며....

행복한사람들
김 옥 공연팀장



안녕하세요! 얼마전 재단 창립 11주년 행사에서 축하공연으로 인사드렸던 김옥 팀장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모아 전달해 온 모든 분들의 값진 수고가 있기에, 지금 도움의 손길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행복한사람들’ 역시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의미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한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의 현실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만의 공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재 연중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처럼 관객이 많은 공연은 아니지만 아픈 아이들의 현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들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옵니다. 공연을 통해서 치료비의 일부를 돕는 것으로라도, ‘행복한사람들’은 아픈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병과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완치의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생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사람들은 199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백혈병어린이를 돕는 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일요일 과천 대공원역과 토요일 안양 (구)벽산 야외공연장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2002. 9. 1. ~ 2002. 11. 30.)

성의정 정애리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님들입니다. (2002. 9. 1. ~ 2002. 11. 30. / 등록번호순입니다.)

윤종근 김혜진 박영숙 윤종배 김수진 김이숙 김지선 박성국 박은애 박인환 박진수 서유석 이은영 이효빈 조연진
허연정 김동희 라규일 박소영 송미경 이윤정 전명란 최수미 최숙이 한 승 김진웅 박은영 권해구 이기훈
주니아빠 이준희 김대희 윤현중 정선희 하민철 손병월 최명호 김영자 오혜경 김형욱 황영달
표지원 장동숙 이현주 이수연 유영길 변지혜 백미란 배지용 방숙영 박종희 남미정 나현선
김태균 김일수 전해원 천경희 김치운 정병림 장희자 오미자 엄준영 성승환 박재성
안유라 정민영 최 훈 최창우 임미선 이태형 이은숙 우찬희 서정미 박찬중
김형철 김기정 황점하 강석순 김말숙 유문숙 송영미 김경수 서성수
김정애 서상현 김숙엽



1. 대한민국 만세! 백혈병어린이 만세!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3월 22일부터 시작한 만세운동이 한해를 마감합니다. 10,003명의 수호투사를 목표로 아심차게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602명의 수호투사를 모집했습니다. 만세회원이 만세(10,003)명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2. 우체국도 CMS를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CMS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CMS란?** 후원자님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재단에 알려주시면, 재단에서 후원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로 신청하신 후원자님들 중 아직 은행에 못 가셨다면 재단으로 CMS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주)삼성전자와 가수 신승훈씨가 후원했어요!

(주)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과 신승훈씨는 '사랑의 클릭'이란 행사의 모금액 700만원과 '애니콜 사랑의 콘서트' 수익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후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서 이한걸 어린이를 비롯한 4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후원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신승훈 팬클럽 **서울히어로**(회장 조지혜)는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해 모아진 600여 만원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재단으로 보내왔습니다. 학생들의 귀중한 용돈으로 채워진 후원금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 이현진(신경모세포종) 어린이에게 전달되어 조혈모세포이식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팬클럽회원들의 뜨거운 사랑이 현진이에게 전달되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꼬리곰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10월 20일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자신이 심은 나무처럼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두 명의 형제가 모두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어머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며,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이들을 대신하여 돌볼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해진다며 살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날은 재단의 홍보대사인 이승환씨와 (주)드림팩토리클럽 분들도 함께 오셔서 열심히 땅을 파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삽질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거예요.

얼터너티브 헤어쇼

지난 11월 3일 얼터너티브 헤어클럽(대표 토니 리쑈)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자선 헤어쇼인 '얼터너티브 헤어쇼'를 개최하였습니다. 6개의 국내 정상급 미용팀과 9개 국외 미용팀이 참가하여 펼쳐진 헤어쇼는 ㈜웰라코리아(대표이사 데트레프 놀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헤어쇼 수익금 2억원 중 1억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나머지 1억원은 영국의 혈액암 연구지원재단인 Leukemia Research Fund에 전달되었습니다. 재단으로 전달된 후원금 중 일부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의 연구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난 11년을 돌아보며

2002년 11월 21일은 우리 재단이 1991년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시작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지 꼭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소리 없이 도와주셨던 7,000여명의 후원자님들, 행사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기업체와 여러 단체들, 자원봉사자님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재단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11월 27일 창립1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나 더! 우리 재단의 로고 기억하시지요? 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단은 이 로고를 '희망미소'라 이름짓고, 소아암 어린이들의 희망이 되고자 '희망미소나누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활동이 될지 지켜 봐주세요!

♥ 특별후원 환아 소개 (2002. 6. 1. ~ 2002. 11. 30.)

2002년 6월

방초교회 500,000

강인호(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희의료원/서울)

ㅎ 놀타리 4,000,000

전영호(재생불량성빈혈/부산백병원/부산)

(주)에스파이어 10,000,000

임지원(재생불량성빈혈/부산대학병원/부산)

고유림(호지킨림프종/전남대학병원/광주)

신승훈/(주)삼성전자 47,000,000

이수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전북)

이한결(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강원)

이호세(신경모세포종/여의도성모병원/서울)

이지호(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이병곤(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충남)

2002년 7월

ㅎ 놀타리 1,000,000

신태용(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병원/부산)

경기가족건강대회 5,000,000

오재성(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이래기금 4호 1,000,000

조재경(수모세포종/파티마의료원/대구)

2002년 8월

오정장로교회 200,000

최단비(유잉육종/서울아산병원/경기)

2002년 9월

(주)원전커머스 6,000,000

조준기(재생불량성빈혈/삼성서울병원/충북)

기동욱(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이래기금 5호 1,000,000

이영창(뇌종양/동산의료원/대구)

신승훈 팬클럽 6,000,000

이현진(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병원/서울)

2002년 10월

ㅎ 놀타리 2,000,000

김민정(신경모세포종/고신의료원/부산)

이래기금 6호 1,000,000

전재필(신경모세포종/동아대학병원/부산)

이래기금 7호 1,000,000

이준희(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남)

2002년 11월

(주)삼성SDS 15,000,000

남하영(신경모세포종/이대동대문병원/서울)

고수정(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최재성(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병원/부산)

이래기금 8호 1,000,000

김완석(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전북)

이래기금 9호 1,000,000

이성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대구)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홍태현(남/만 2세)
망막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10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강인혁(남/만 5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1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전재현(남/만 2세)
연소성골수단구성백혈병 / 여의도성모병원
2002년 10월 제대혈이식 시행



윤연건(남/만 5세)
급성골수성백혈병 / 여의도성모병원
2002년 10월 제대혈이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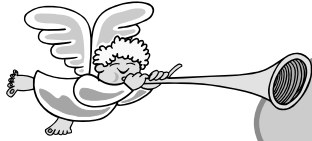
이하진(남/만 7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11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백근우(남/만 7세)
만성골수성백혈병 / 동아대학교의료원
2003년 1월 제대혈이식 시행예정



장성원(남/만 3세)
악성림프종 / 여의도성모병원
2003년 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2. 11. 30. 현재)

참여후원자 : 2,773명 구좌수 : 17,650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2. 9. 1. ~ 2002.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타은행도 동일

경남은행(514-07-0175564)

광주은행(200-107-315315)
유미진

국민은행(031-01-0414-356)

공진희 권경은 김미경 김소연 김 신 김영수
김희정 남기철 노제향 문수현 박종희 박현진
박형은 백유진 손성기 신은미 심혜영 안윤향
오현숙 유진희 이범신 이석란 이소연 이영선
이윤정 이정은 이진민 이진아 이진화 임윤미
채상혁 최명애 홍은경 황순자 황정하

기업은행(090-000260-04-022)

이혜영 최호식

농협(029-01-170940)

구명림 김경혜 김기영 김도훈 김순옥 김은숙
김희선 김희숙 박달래 박미숙 박성희(아름희)
서형지 송태종 신선희 이순남 이옥실 이현경
정은미 정재숙 정진희 지경미 최선아 최수미
최우정 최희연 한계영 홍미자 홍진숙 황운순

대구은행(004-05-179828-001)

김영미 김은영 박계향 박선하 박은영 배진희
백동희 이현숙 임은애 전소영 최선자 최윤선
최정화

부산은행(070-01-021379-8)

김현주 오상희 윤순희 이주형 진성숙 한정희

서울은행(16508-2945601)

공종업 김지은 박성국 이민아 장영림

신한은행(394-01-000694)

김지봉 이주희 이현정 최은영

외환은행(141-22-00799-6)

강준규 김양희 김진이 노혜정 박애라 변영란
최영주 최정순

우리은행(112-04-112571)

강혜영 고은아 곽현주 김종수 김정은 김철중
김해숙 박병석 박선홍 박유현 백현숙 예미경
오봉자 임윤지 장은경 지민혜

우체국(012989-01-003313)

김득환

제일은행(225-20-385050)

박정민 안현경 임선애 장미애 황익자

조흥은행(367-01-192434)

고수정 김미영 김연수 김영근 김혜영 나진주
박주연 옥선미 이강희 이재현 이정환 이종한
정은수 최보윤 함태진 홍성운

하나은행(144-121835-00105)

강미애 김석환 김현진 여홍명 우찬희 전상훈
정명선 황세희

한미은행(100-59711-251)

김영진 송영록 우아미 최영미

지 로(6981440)

구봉정 권혁민 권혜미 김민정 김봉하 김소진
김수진 김용갑 김재희 김정아 김정윤 김혜경
남미정 남혜경 박소영 박수미 박유선 박인환
박주연 박준용 박지영 서민자 선우지연
신덕용 신주혜 안병희 안주연 양용석 이경라
이수민 이은정 이은주 이효정 임상희 임수진
임재우 장귀남 정소명 조영아 주문희 주성재
최승희 최연옥 최중수 최진숙 한은숙 한진수
함정희 홍금자 홍지연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2002. 9. 1. ~ 2002. 11. 30.)

권진욱(3) 김혜영(836) 동아병원(86) 드림팩토리(143) 박은영(140) 여용기(298)
 이강묵(25) 이루라(49) 이한구(3) 장재길(56) 채성석(7) 천강재(37)
 최지은(1) 하종운(13) 한국건강관리협회(12) 홍세경(7) 무명(31)

◆특별 후원금

2002년 9월 구의교회 100,000 박준뷰티랩 3,597,000 부산은행 100,000 비엠퍼시픽 1,000,000
 새마을금고 1,000,000 여의도우체국장 100,000 이상재 1,000,000 이철중 200,000
 참사랑의집 30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4,099,420
 10월 구의교회 100,000 김동완 100,000 대한태권도협회 200,000 드림팩토리 1,000,000
 부산은행 100,000 신이경 100,000 한국HP 610,000
 11월 구의교회 100,000 권양숙 300,000 김용희 100,000 김정례 100,000 김혜숙 100,000
 부모연대 100,000 송민근 280,000 신영에이전시 200,000 웰라코리아 100,000,000
 철도회원협회 1,002,630 청룡동금고 374,520 한강로타리클럽 380,000
 LG화재새마을회 1,500,000

◆후원물품 (2002. 9. 1. ~ 2002. 11. 30.)

故김승휘母 김치 권진욱 문화상품권(1) 김연제父母 김치 김현열父母 화장지
 박시웅父 굴(2박스) 박찬중 유연제(19), 세제(6), 식기세척제(24), 선물세트(6)
 삼성생명동작지점 공작재료 심지해 닭고기 이희정 인형(17) 조동준 음료수
 조예성父 미끄럼틀 최영석 미역, 라면(박스), 버섯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알리안츠재일생명의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월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2년 겨울호는  제일약품주식회사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로)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